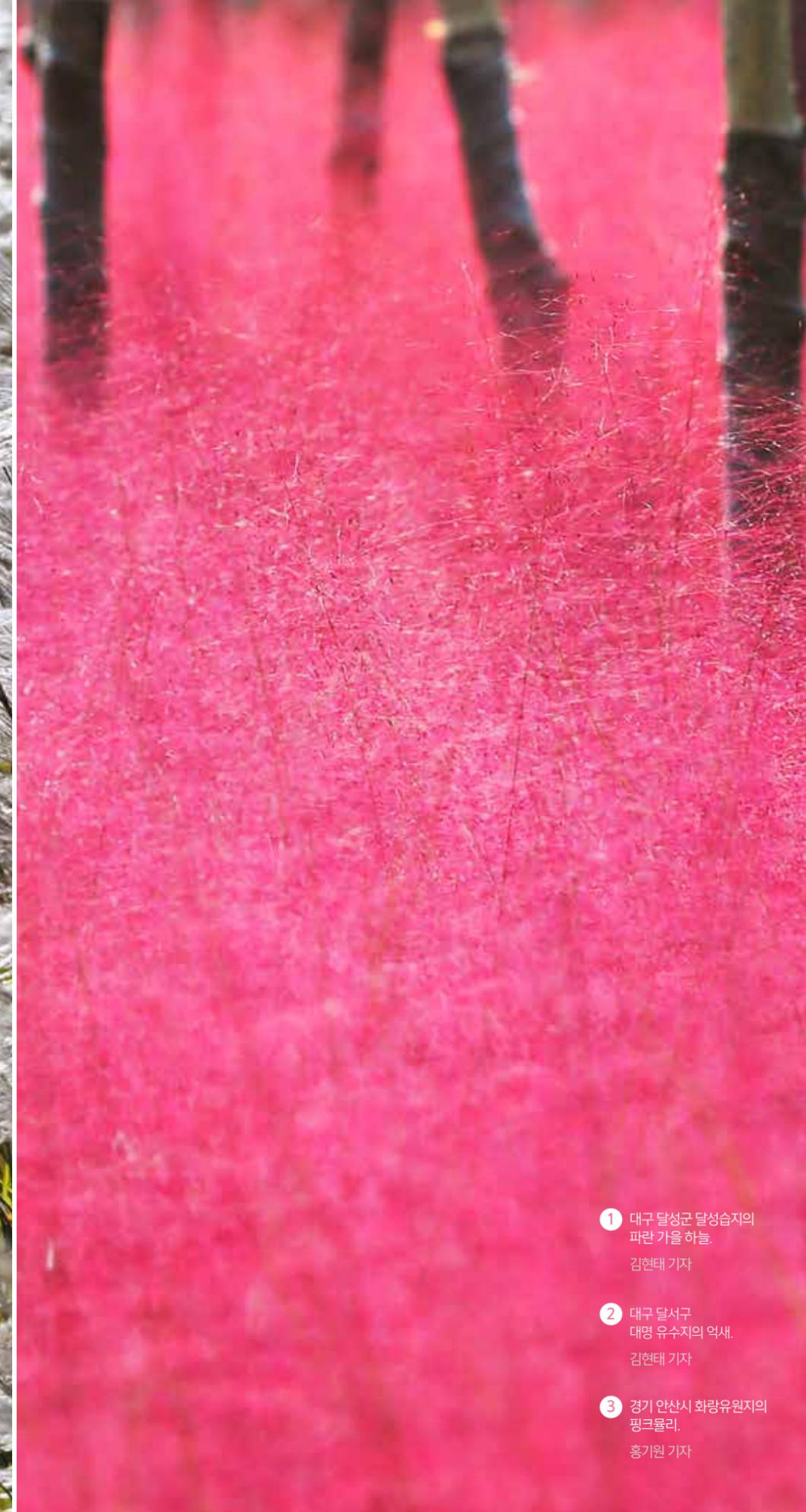




렌즈에 담긴 삶과 자연의 순간들

색깔이란 '물체가 빛을 받을 때 빛의 파장에 따라 표면에 나타나는 특유한 빛'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빛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침착하고 차분하며, 빨강은 열정적이고 의욕적인 사람이, 흰색은 희생정신이 강하고 헌신적인 사람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떤 가을빛에 마음을 빼앗겼나요?

글 전수영 기자



1 대구 달성군 달성습지의 파란 가을 하늘.
김현태 기자

2 대구 달서구 대명 유수지의 억새.
김현태 기자

3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의 핑크몰리.
홍기원 기자



↑
전원 출석한 초등 1학년 교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으로 등교 인원이 늘어난 10월 19일 인천시 동구 창영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열중하고 있다.
 윤태현 기자



↑
거리 두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0월 4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시민들이 충분한 거리 두기를 하며 가을을 즐기고 있다.
 김현태 기자

↓
새들의 거리 두기
 10월 14일 강원 강릉시 남대천의 전깃줄 위에 한 무리의 붉은부리찌르레기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앉아 있다.
 양지웅 기자





파도 즐기는 서퍼

육지에서 거친 파도와 스킨스쿠버 등 다양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인공 서핑시설 '웨이브 파크'가 경기 시흥시 시화일티테크노밸리(시화MTV) 내 거북섬에서 개장했다. 10월 7일 '웨이브 파크'에서 서퍼들이 파도를 타고 있다.

홍기원 기자



순천만 습지의 가을

전남 순천시 순천만 습지의 가을 풍경. 10월 5일 습지 옆 논에 '힘내라, 대한민국'이라는 글귀와 함께 흑두루미가 그려져 있다.

박철홍 기자



옥상 고인 물에 반영된 하늘

10월 4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건물 옥상 난간에 고인 물 위로 파란 가을 하늘이 데칼코마니 작품처럼 보인다.

김동민 기자



가을에 즐기는 궁궐과 종묘
 대표적인 궁궐 활용 축제인
 궁중문화축전이 처음으로
 가을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11월 8일까지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과 종묘에서
 열린다. 10월 10일 저녁 경회루
 앞에서 열린 개막식.

한종찬 기자



가을에 핀 벚꽃

10월 4일 제주도 건입동 사라봉 입구에 때아닌
 벚꽃이 활짝 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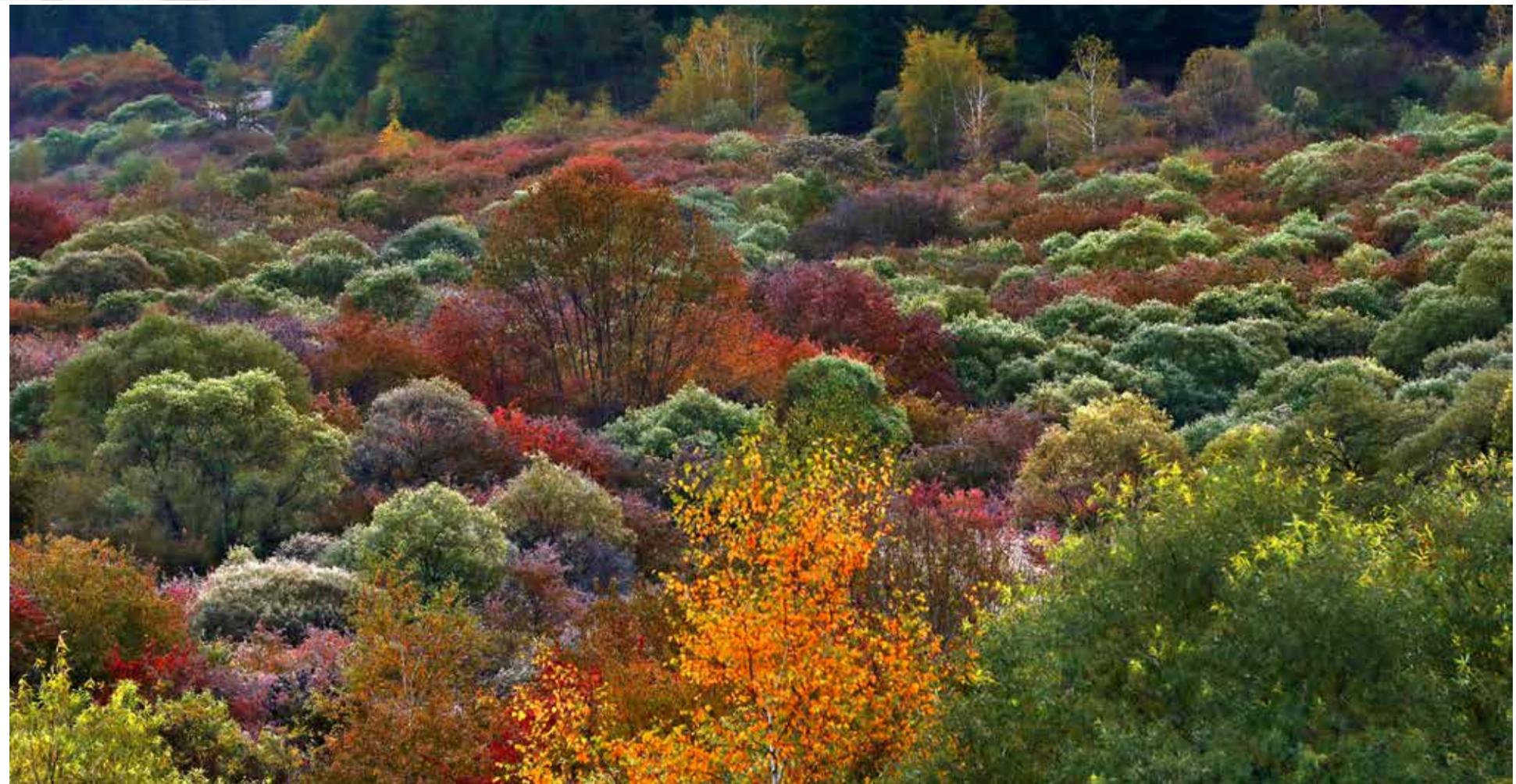
박지호 기자



비밀의 정원에 내려앉은 서리

10월 15일 강원 인제군 남면 감둔리 '비밀의 정원'에
 서리가 내려앉아 있다.

양지웅 기자





노랗게 물드는 은행잎

10월 19일 전남 나주시 남평읍 은행나무 수목원의 나무들이 노란색으로 물들고 있다.

박철홍 기자



이슬 위의 청개구리

절기로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한로(寒露)인 10월 8일 강원 춘천시 우두동 논이 벼에 청개구리가 앉아 있다.

양지용 기자